동사의 내부논항과 외부논항에 따른 의미적 중의성에 관한 연구 *

이 영 헌

(조선대학교)

Lee, Young-Hern. 1998. **Semantic Ambiguities of the Internal and External Arguments in Korean Verbs.** *Linguistics*, 6-1, 45-64.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semantic ambiguities of the internal and external argument structures in Korean verbs. Traditionally the serial verbs were not distinguished from the the compound verbs in Korean, therefore there wasn't any discussion about the argument structures. However, we will regard the predicate which includes the internal arguments as a constituents of the predicate semantically. The multiple subject construction was regarded as a propositional expression syntactically. We aslo provide a device on how to formalized the internal arguments and the predicates as a semantic unit. For instance, *KKoch-ga pi-ta*(bloom) was not regarded as propositional expression but a simple predicate in this paper. The expressions *meokko-nol-ta* (eat and play/ live an idle life) and *meokko-po-ta* (has eaten) could be treated as the serial verbs. But the argument structures of the verbs are quite different. The verb *meokko-nol-ta* itself does not have any ambiguity, but the verb could be interpreted as an ambiguous expression depending on the structures. In section 1, we try to distinguish the compound verbs and serial verbs. And in section 2, we point out the difference of internal and external arguments. In section 3, we analyse the argument structures for the transitive and intransitive verbs. In section 4, we give a formalization for the combination of the second subject and the predicates. Finally we summarize the predicate structure of multiple subject constructions. (Chosun University)

* 이 논문은 1996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1.

동사의 분류는 이들이 취하는 논항의 수에 따라 1항 술어, 2항 술어, 그리고 n-항 술어로 분류한다. 이러한 1항 술어나 2항 술어 등의 기본적인 형태는 단순 동사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1) a. John meets Mary and sings.
b. John wants to go to the school.

(1a)의 meets Mary and sings나 (1b)의 wants to go를 단순 동사로 간주하지 않는 것은 적어도 두 개의 동사가 각각의 논항을 가질 수 있다는 데 근거한 것이다. 예컨대 (1a)는 John meets Mary and John sings와 같은 중문으로 간주되며, (1b)는 John wants for himself to go to the school과 같은 복문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나 국어에는 가끔 두 동사가 함께 쓰이더라도 이들 두 동사를 단순동사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다.

(2) a. I *go look* at the flower.
b. I *come see* who's at the door.
(3) a. 호랑이가 아이를 물어 갔다.
b. 철수는 놀고 먹는다.

(2)에서 보는 것처럼 두 동사 go와 look at, 그리고 come과 see가 함께 쓰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를 복문이나 중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국어에 있어서도 (3)에서 보는 것처럼 물다와 가다, 그리고 놀다, 먹다가 함께 쓰이고 있지만 (3)의 두 문장은 복문이나 중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특히 (3b)에서처럼 먹다는 분명한 타동사임에도 불구하고 목적어를 갖지 않는 경우, 선행동사와 후행동사가 결합하여 하나의 동사를 이루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듯 두 동사가 함께 쓰이는 경우 이들 두 동사를 하나의 동사로 간주하며 이를 사슬동사(serial verb)[1]라 부르고 이들 사슬동사

1. 사슬동사에 관한 논의는 이영헌(1996)을 참조할 것.

는 단순동사로 다루고 있다.

이렇듯 영어는 물론이고 국어의 사슬동사는 형태상 복합동사와 동일하지만, 이들이 취하는 논항은 복합동사가 취하는 논항과 다르며, 단순동사가 취하는 논항과도 다르다. 바꾸어 말하면 사슬동사는 형태상 복합동사와 유사하면서도 의미상으로는 단순 동사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들이 취하는 논항은 대단히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동사가 취하는 논항의 특성에 따라 의미적 중의성이 유발되는 몇 가지 특성을 규명하고 이를 형식화함으로써, 동사구 범주설정에 대한 새로운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둔다. 우선 동사의 특성을 살펴본 뒤에 이들의 논항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2.

국어에서는 복합동사와 단순동사의 구별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복합동사는 형태상으로 두 동사가 연속적으로 쓰이어 각각의 두 동사가 주어의 행위나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형태상으로는 복합동사와 유사하지만 통사적 기능은 물론이고 의미적 특성이 복합동사와는 다른 것들이 있다[2].

(4) a. 철수는 젖을 **먹고 는다.**
b. 철수는 **먹고 는다.**

(4a)의 **먹고 는다**나 (4b)의 **먹고 는다**는 동일한 구조이지만 전자는 복합동사라 할 수 있고, 후자는 단순동사라 할 수 있다. 단순동사와 복합동사의 구별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성을 갖는다.

첫째, (4a)의 **먹고 는다**나 **(4b)의 먹고 는다**는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4a)에서는 타동사 **먹다가 목적어를** 갖는 경우이고 (4b)는 목적어를 갖지 않는 경우이다. 이러한 목적어의 유무는 전체 문장의 의미에 있어서

2. 최현배(1971), 성기철(1972), 김석득(1992), 서정수(1996) 등에서는 끌고 가다와 같은 /-고/구조의 동사는 복합동사로 간주하고 끌어 가다와 같은 /-어/구조의 경우는 후행동사가 선행동사에 대한 보조적 의미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다루었다.

서로 상이함을 보이고 있다. 즉 (4a)에서 철수는 어린 아이임을 말해주는데 반해서 (4b)에서 철수는 어린 아이가 아니라 성인임을 말해주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4b)에는 두 동사가 쓰이고 있지만, 이들 동사를 하나의 단순동사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먹고 논다**의 의미는 **무위도식하다**로써 자동사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4a)의 **먹고 논다**는 복합동사이고 (4b)의 **먹고 논다**는 단순동사라 할 수 있다.

둘째, 복합동사에 있어서는 각각의 동사에 시제를 표시할 수 있다.

(5) 철수는 젓을 먹고 논다. → a. 철수는 젓을 먹었고 놀았다.
→ b. 철수는 젓을 먹었고 그리고 놀았다.
(6) 철수는 먹고 논다 → a. *철수는 먹었고 놀았다.
→ b. *철수는 먹었다 그리고 놀았다.

(5a)와 (5b)가 문법적인 것은 두 동사가 각각의 독립적 문법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먹다, 놀다**가 과거 시제와 함께 쓰일 수 있다. 그런데 반해서 (6)에 과거 시제를 부가하면 (6a)나 (6b)와 같이 비문법적 표현이 유도될 뿐만 아니라, (6)의 동사 **먹고 놀다**의 원래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즉 (6)의 의미를 (6a)나 (6b)와 같이 쓸 수 없는 것은 바로 (5)의 **먹고 놀다**와 (6)의 **먹고 놀다**[3]는 서로 다른 구조임을 말해준다. 즉 전자는 복합동사이고, 후자는 사슬동사인 단순동사이다.

셋째, 복합동사는 일반적으로 /-고/구조를 갖지만 단순동사 즉 사슬동사는 /-어/구조를 갖는다.

(7) a. 철수가 고기를 물어 뜯다.
b. 철수가 고기를 물고 뜯다.
(8) a. 철수가 설탕을 핥아 먹는다.
b. 철수가 설탕을 핥고 먹는다.

(7)과 (8)에서 보는 것처럼 두 동사가 **물다**와 **뜯다**, 그리고 **핥다**와 **먹다**가

3. **먹고 놀다** 뿐만이 아니라 **죽고 못산다** 역시 분리할 수 없는 단일 동사인 사슬동사이다.

결합되는 과정에서 /-어/에 의하여 결합되는 경우와 /-고/에 의하여 결합되는 경우가 있다. 의미상 (7a)의 **물어 뜯다**에 있어서는 두 동사가 나타내는 행위가 하나의 행위이거나 두 행위라 할지라도 연속적인 일련의 행위를 나타낸다. 그러나 (7b)에 있어서는 무는 행위와 뜯는 행위는 명시적으로 독립된 두 행위이기 때문에 복합동사로 간주할 수 있다. 이렇듯 /-고/에 의하여 연결된 경우는 복합동사인데 반해서 /-어/에 의하여 결합된 경우는 단순동사라 할 수 있다. 즉 (7a)의 **물어 뜯다**나 (8a)의 **삶아 먹다**는 단순 동사이며, (7b)의 **물고 뜯다**나 (8b)의 **삶고 먹다**는 복합동사이다.

넷째, 단순 동사와 복합동사는 부정의 수식범위가 다르다. 국어의 부정법은 1형부정과 2형부정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으나, 이들 동사가 취할 수 있는 1형부정의 경우를 예로 들어 이들의 수식범위에 따른 동사의 상이를 살펴볼 수 있다.

(9) 철수는 개를 때리고 죽였다.
(10) a. 철수는 개를 안 때리고 죽였다.
b. 철수는 개를 때리고 안 죽였다.
c. 철수는 개를 안 때리고 안 죽였다.

(9)의 표현이 가질 수 있는 부정표현에는 (10)과 같은 3가지의 표현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이 각각의 동사에 대해서 부정이 가능한 것은 각각의 동사가 독립적 행위나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때리고 죽였다**는 복합동사이다. 그러나 이른바 사슬동사라 할 수 있은 **때려 죽였다**에 있어서는 부정의 형식이 다름을 볼 수 있다.

(11) 철수는 개를 때려 죽였다.
(12) a. 철수는 개를 안 때려 죽였다.
b. 철수는 개를 때려 안 죽였다.
c. ?* 철수는 개를 안 때려 안 죽였다.

(11)을 부정표현으로 바꾸어 쓸 때, (12a), (12b)는 문법적인데 반해서 (12c)가 비문법적이거나 부자연스러운 표현인 것은 **때려 죽이다**는 하나의 동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독립적 요소로 간주하여 각각의 요소를 부정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하나의 행위를 두 번 부정함으로써 비문법성이 야기된 경우이다. 즉 **때려 죽이다**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동사임을 말한다. 따라서 **때려 죽이다**는 단순 동사이다.

의미적으로도 이들 동사에 부정어를 부가하는 경우에, 의미가 다름을 볼 수 있다. **때리고 죽이다**와 같은 복합동사와 **때려 죽이다**와 같은 사슬동사에 부정을 부가하였을 경우, 함의 관계가 다름을 볼 수 있다.

(13) a. 철수는 개를 안 때리고 죽이다 ⊨개가 죽다
b. 철수는 개를 안 때려 죽이다 ⊨ (개가 살다 ∨ 죽다)
(14) a. 철수는 개를 때리고 안 죽이다 ⊨개가 살다
b. 철수는 개를 때려 안 죽이다 ⊨(개가 살다 ∨ 죽다)
(15) a. 철수는 개를 안 때리고 안 죽이다 ⊨ 살다
b. ??철수는 개를 안 때려 안 죽이다 ⊭ ∅

때려 죽이다와 같은 단순 동사에 부정을 부가할 경우 (13b)에서 보는 것처럼 선행동사를 부정하거나 (14b)에서 보는 것처럼 후행동사를 부정하더라도 [(개가 살아있다) ∨ (개가 죽다)]와 같은 중의적 의미를 함의하지만, 복합동사에 있어서는 이러한 함의가 성립하지 않는다. 즉 복합동사에 있어서는 부정의 수식범위는 두 동사 가운데 어느 하나의 동사에 국한된다. 이러한 함의 차이는 바로 복합동사와 단순동사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다섯째, 복합동사와 단순동사는 관계화(relativization)에 있어서도 서로 다르다. 즉 **때려 죽이다**와 같은 단순 동사가 가질 수 있는 관계구문과 **때리고 죽이다**와 같은 복합동사가 가질 수 있는 관계구문은 서로 상이하다.

(16) a. 철수가 개를 때리고 죽이다.
b. 철수가 때리고 죽인 개
c. 개를 때리고 죽인 철수
d. 개를 때리고 개를 죽인 철수
(17) a. 철수가 개를 때려 죽이다.
b. 철수가 때려 죽인 개
c. 개를 때려 죽인 철수
d. ?? 개를 때려 개를 죽인 철수

때리고 죽이다와 같은 복합동사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을 관계절화 할 때, (16b)는 물론이고 (16c)와 (16d)와 같이 문법적 표현이 유도된다. 즉 **때리다**와 **죽이다**가 /-고/에 의하여 연결된 복합동사의 경우에는 각각의 동사를 포함하고 있는 각각의 관계구문이 가능하다. (16d)가 문법적인 것은 바로 **때리다**와 **죽이다**를 별개의 동사로 간주하여 이들을 관계절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반해서 /-어/에 의하여 연결된 경우에는 각각의 동사를 분리한 관계문은 불가능하다. 바꾸어 말하면 **때리다**와 **죽이다**를 분리하여 관계절화한 (17d)가 비문법적인 것은 **때려 죽이다**를 분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각의 분리된 동사로 간주하여 관계화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때리고 죽이다**는 복합동사인데 반해서 **때려 죽이다**는 단순동사임을 말해준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고/구조를 갖는 표현 가운데는 예외적으로 단순동사로 간주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

(18) a. 철수는 돌다리를 딛고 가다.
b. ?*철수는 돌다리를 딛어 가다.
(19) a. 철수는 돌다리를 딛고 서다.
b. *철수는 돌다리를 딛어 서다.

전통적으로 /-고/구조는 /-어/구조와 상보적 분포관계를 갖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어/구조 다음에 오는 후행동사 **가다/오다**는 조동사로 간주하여[4], 지속이나 진행의 의미만을 갖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18a)의 **딛고 가다**는 /-고/구조를 갖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복합동사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18a)의 **딛고 가다**와 (19a)의 **딛고 서다**는 각각의 선행동사와 후행동사 상호관계가 다름을 볼 수 있다. 예컨대 (18a)의 **딛고 가다**의 경우에 있어서는 /-고/구조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행동사 **딛다**와 후행동사 **가다** 사이에는 두 행위의 독립성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두 행위를 일련의 행위로 간주할 수 없다. 그러나 동일한 구조를 갖는 **딛고 서다**에 있어서는 두 동사가 나타내는 행위를 분리하거나

4. 김석득(1992), 남기심/고영근(1991) 등에서는 이들 요소를 보조용언으로 간주하여 지속, 진행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다루고 있다.

독립된 행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하기 어렵다. 즉 (18)의 **딛고 가다**는 독립적 두 행위로 볼 수 있으나 (19)의 **딛고 서다**는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다.

딛고 가다와 **딛고 서다**에 부정을 가하면 이들의 의미적 차이가 분명해진다. **딛고 가다**를 부정표현으로 바꾸면 **딛고 안 가다**가 가능하지만, **딛고 안 서다**와 같은 행위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딛고 서다**의 부정표현은 비문법적이다. 즉 **딛고 안 가다**는 일차적으로 **딛다**를 부정한 경우로써 예컨대 대상물을 딛는 것이 아니라 발로 차고 간 경우를 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딛고 안 서다**에 있어서는 일차적으로 **딛다**를 부정할 수는 없다. 예컨대 **딛고 안 서다**가 함의하는 것이 **안 딛고 서다**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딛는 행위와 서는 행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만, 딛는 행위와 가는 행위는 별개의 행위로 구분될 수 있기 때문에 **딛고 가다**는 복합동사이지만, **딛고 서다**는 단순동사로 간주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하여 국어의 동사 가운데는 통사·형태상으로 동일한 동사라 할지라도 의미적으로 이들 동사는 단순동사와 복합동사가 서로 다름을 보았다. 이들 동사를 복합동사와 단순동사로 구분한 것은 이들이 가질 수 있는 논항구조의 상이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에는 이들 동사의 논항구조의 상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임의의 동사표현이 함수자로써 기능을 할 때, 이들 동사가 가질 수 있는 논항의 개수에 의하여 동사의 특성이 파악될 수도 있지만, 논항의 성질에 따른 동사의 특성이 구분될 수도 있다. 예컨대 임의의 표현이 두 개의 논항을 취할 때, 이들 두 개의 논항 가운데 반듯이 하나는 외부논항(external argument)이 되어야 하고 다른 하나는 내부논항(internal argument)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바꾸어 말하면 논항의 수에 의한 특성을 통사적 특성이라고 한다면 논항의 성질에 의한 외부논항과 내부논항의 구분은 의미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DeBruin and Scha (1988)에 의하면 외부논항이란 함수자 표현의 범주 속에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논항이 되는 요소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내부논항이란 함수자 표현의 범주 속에 나타나는 요소를 말한다. 예컨대

명사구의 주어는 명사구 속에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명사의 논항이 되는 경우, 이는 외부논항이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문장의 주어는 동사구 속에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동사구의 논항이 되는 경우이므로 주어는 동사구에 대한 외부논항이라고 할 수 있다.

(20) a. The doctor's examination of the patient.
b. The doctor examines the patient.

(20a)의 경우에 있어서 the doctor는 이 명사구의 주어 역할을 하면서도 명사구 the doctor's examination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20b)에서도 명사구 the doctor는 동사구 examined the patient의 속에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동사구의 논항이 된다. 이러한 경우, 명사 the doctor는 각각 (20a)와 (20b)의 외부논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반해서 patient는 examine의 내부논항이 된다. 왜냐하면 (20a)에서 the patient는 명사구의 수식어에 해당하기 때문이고, (20b)에서 보는 것처럼 the patient는 동사의 보충어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외부논항은 동일범주의 최대투사(maximal projection) 밖에 나타나는 요소를 말한다. 그런데 반해서 내부논항은 동일범주의 최대투사 밖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최대투사 안에 나타날 수도 있다.

(21) a. A new book about syntax appeared last year.
b. A new book appeared last year about syntax.

(21a)에서 about syntax를 book에 대한 내부논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명사구 a new book about syntax내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21b)에서 보는 것처럼 동사구 다음에 나타날 수도 있다.

국어에 있어서도 내부논항과 외부논항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어는 영어와는 달리 통사적 특성에 의한 논항의 구별이 용이하지 않는 것은 뒤섞기(scrambling) 규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범주의 최대투사에 따른 논항의 성질을 규명하기 곤란하다.

(22) a. 철수가 순이에게 책을 주었다.

b. 철수가 책을 순이에게 주었다.
c. 책을 순이에게 철수가 주었다.
d. 순이에게 책을 철수가 주었다.

(22)에서 보는 것처럼 주어와 목적어의 뒤섞기는 물론이고 두 목적어의 뒤섞기는 대단히 자연스러운 현상 가운데 하나이다. 즉 국어와 같은 비형상(non-configuration) 언어에서는 최대 투사와 같은 구조적 관계로 설명하기는 곤란하다.

이렇듯 국어는 뒤섞기 규칙이 적용되는 비형상성 언어이면서도 하나의 구성요소 사이에는 이러한 뒤섞기 규칙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23) a. 이 나무가 꽃이 핀다. → *꽃이 이 나무가 핀다.
b. 그이가 목이 쉬었다 → ?목이 그이가 쉬었다
c. 그이가 얼굴이 야위었다. → *얼굴이 그이가 야위었다.
(24) a. 그 여자가 코가 예쁘다. → * 코가 그 여자가 예쁘다.
b. 이 책이 내용이 좋다. → ?내용이 이 책이 좋다.

(23)과 (24)의 문장들은 이른바 중주어 문장이다[5].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 중주어 구문은 국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뒤섞기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22)에서 본 것처럼 주어와 목적어의 뒤섞기는 물론이고 두 목적어들 사이의 뒤섞기 역시 자유로운데 반해서 (23)과 (24)의 화살표 오른쪽 표현이 불가능한 것은 두 주어의 뒤섞기가 제한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현상은 다음의 3중 주어를 보면 더욱 명백히 알 수 있다.

(25) a. 구두가 바닥이 구멍이 났다.
b. ?* 구두가 구멍이 바닥이 났다.
c. ** 구멍이 바닥이 구두가 났다.

(25b)와 (25c)의 비문법성은 중주어 구문에 있어서는 뒤섞기가 적용되어서

5. 특히 중주어 구문의 경우에 있어서 술어는 형용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23)에서 보는 것처럼 동사에 있어서도 중주어 구문이 성립한다.

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우선 국어의 중주어 구문에서는 뒤섞기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바로 외부논항과 내부논항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26) a. 구두가 구멍이 났다.
b. 구두가 구멍 났다.
(27) a. 구두가 구멍이 났다.
b. * 구두 구멍이 났다.

(26)과 (27)을 비교해볼 때, **구두**를 제1주어 그리고 **구멍**을 제2주어라고 한다면 제1주어와 제2주어 사이에는 통사적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26b)에서 보는 것처럼 제2주어의 격표지는 생략될 수 있는데 반해서 (27b)에서 보는 것처럼 제1주어의 격표지가 생략되면 비문법적이다. 이러한 사실은 제2주어는 명시적 주어가 아님을 의미한다.

둘째, 제1주어와 제2주어는 술어와의 구성관계가 다르다. 제2주어인 **구멍**은 동사 **나다**와 결합하여 하나의 구성요소를 이룰 수 있는데 반해서 제1주어 **구두**는 동사와 결합하여 하나의 구성요소를 이룰 수 없다. 바꾸어 말하면 **구두(가) 나다**는 비문법적이다. 그런데 반해서 **구멍이 났다**나 **구멍 났다**가 하나의 구성요소를 이룬다는 것은 제2주어와 동사와 결합하여 하나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멍(이) 났다**는 하나의 서술어로 간주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멍(이) 나다**는 하나의 구성요소이면서 **구멍은 나다의 논항이 된다**. 그런데 반해서 **구두**는 동사 나다와 하나의 구성요소가 아니면서도 **나다의 논항이 된다**. 따라서 **구멍**은 나다의 내부논항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구두**는 **나다**의 외부논항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제2주어가 갖는 의미적 특성과 제1주어가 갖는 의미적 특성이 상이함을 볼 수 있다.

(28) a. 이 나무가 꽃이 핀다.
b. 구두가 바닥이 구멍이 났다.
c. 그이가 목이 쉬었다
d. 그이가 얼굴이 야위었다.

(28a)에서 보는 것처럼 제1주어인 **나무**와 제2주어인 **꽃** 사이에는 의미적 속성이 다름을 볼 수 있다. 우선 명사가 갖는 일차적 속성을 실체성이라고 하더라도 실체성의 정도가 다름을 볼 수 있다. 어떠한 경우라도 명사 **나무**는 동작성이나 상태성을 나타낼 수 없다. 그러나 명사 **꽃**은 실체성을 가지면서도 다음에 오는 술어에 따라 동작성이나 상태성을 나타낼 수 있다. 만일 명사 **나무**와 **꽃**이 동일한 실체성을 나타낸다면 서술적 결합관계도 동일해야 할 것이다.

(29) a. *나무가 핀다. 꽃이 핀다
b. *책이 좋다 ?내용이 좋다.
c. * 그이가 쉬었다. 목이 쉬었다.

(29)에서 보는 것처럼 제2주어와 서술어가 함께 쓰이는 경우는 문법적인데 반해서 제1주어와 서술어가 함께 쓰이는 경우는 비문법적이거나 문법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미가 불명료한 경우이다. 이러한 사실은 (29)의 **나무**나 **꽃**이 모두 명사이지만 **나무**는 **꽃**보다 그 실체성이 더 분명하다.

이러한 명사의 실체성 정도의 구분은 동사 **-하다**나, **이다** 등과의 결합여부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서정수: 1996 456-463)

(30) a 구두가 바닥이 났다. → ?구두 하다. 바닥 하다.
b. 철수가 목이 쉬었다. → *철수 하다. 목하다.

(30a)에서 보는 것처럼 **구두가 바닥이**와 같은 중주어의 경우에 있어서 제1주어 **구두**는 동사와 **하다**와 결합이 불가능한데 반해서 제2주어의 경우에 있어서는 **바닥**과 **하다**가 결합될 수 있다. 비록 **구두**나 바닥이 동일한 실체명사라 할지라도 **구두**는 **바닥**보다는 명사적 특성이 더 강한데 반해서, 바닥은 **구두**보다 동사적[6] 속성이 더 강하다.

---

6. 이러한 사실은 3중주어 구문을 보면 더욱 명백해진다. 즉 구두가 바닥이 구멍이 났다에서 바닥은 구두보다, 그리고 구멍은 바닥보다 동사성이 더 강함을 볼 수 있다. 즉 구두나다는 비문법적인데 반해서 바닥나다, 구멍나다는 문법적이라는 것은 이를 입증해준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하여 국어에 있어서는 내부논항이 되는 요소와 외부논항이 되는 요소의 차이점을 통사·의미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즉 제2주어의 경우는 동사와 결합하여 하나의 구성요소를 이루지만, 제 1주어는 동사와 결합하여 하나의 구성요소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명시적 외부논항이라고 할 수 있다. 서술어가 두 개의 주어를 취하든 목적어를 취하든 간에 이들 제2주어나 목적어는 동사의 내부논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반해서 제1주어는 외부논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외부논항과 내부논항을 구분한다면 동사가 취할 수 있는 논항의 성질에 따른 의미구조를 파아하기 용이할 것이다.

4.

내부논항과 외부논항의 구별은 서술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았다. 특히 국어의 중주어 구문에서 제 1주어를 제외한 그 외의 주어는 내부논항이 된다는 사실도 살펴보았다. 그러나 내부논항이 되는 요소 가운데는 주어의 성질에 따라 명시적 논항이 되는 경우와 서술어 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오다/가다/자다** 등과 같은 동사들이 무생물이나 비행위자의 주어와 함께 쓰이는 경우 이들 동사는 주어와 더불어 하나의 서술어가 된다. 그러나 행위 주어가 이들 동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에는 명제적 표현을 이루기 때문에 이들 명사는 명시적 논항 역할을 한다.

(31) a. 비가 온다.
　　b. 철수가 온다.
(32) a. 바람이 불다
　　b. 철수가 나팔을 불다.
(33) a. 달이 (홍수)(네모) (저녁놀이) (때) (철) (꽃잎)이 지다.
　　b. 철수가 시합에 지다.

(31a)의 **비**, (32a)의 **바람**, 그리고 (33a)의 **달, 홍수** 등은 모두 비행위 주어이지만, (31b), (32b), (33b)의 **철수는 행위주어**이다. 따라서 **오다/불다/지다** 등이 비행위 주어와 함께 쓰이는 경우는 이들 비행위 주어와 **오다/불다/지다**가 결합하여 하나의 서술어를 형성한다. 따라서 **비가 오다**에서 비는 오

다의 논항이 아니라 비가 오다가 하나의 서술어로 간주되고 (31b)에서 철수는 오다의 논항표현이므로 철수가 오다는 명제적 표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주어 구문의 제2주어는 술어와 결합하여 또 하나의 새로운 서술어 표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주어 구문에 행위 주어와 비행위 주어가 쓰이는 경우 제 1주어가 비행위 주어이면서 제 2주어가 행위 주어인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코끼리가 코가 길다에서 제1주어 코끼리는 행위 주어이지만 제 2주어 코는 비행위 주어일 수 있으나 역으로 코가 제1주어로 쓰이고 코끼리가 제2주어로 쓰이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코가 코끼리가 길다와 같은 표현이 비문법적인 것은 바로 제1주어와 제2주어의 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코가 길다 역시 비행위 주어와 서술어가 결합한 경우이므로 이 코가 길다는 명제적 표현이 아니라 하나의 서술어로써 기능을 한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받아들일 때 격표지를 가지고 있는 제2주어와 서술어와의 관계는 두 함수적 결합관계로 간주할 수 있다.

(34) a. 비가 오다
b. 이 나무가 꽃이 피다.
(35) a. λX,Y [X ⊓ Y]
b. λx [X(x) ∧ Y(x)]
(36) a. [비 ⊓ 오다]
b. λx [비(x) ∧ 오다(x)]

우선 비가 오다가 의미적으로 서술어로 간주되지만 통사적으로는 명시적 격표지 가가 있기 때문에 비는 논항표현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의 논항을 함수로 간주한다면 통사적 조건과 의미적 조건을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34a)의 명사 비와 동사 오다를 모두 서술어로 간주함으로써 비와 오다 사이에는 두 함수자의 표현이 합침(meet)의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34a)는 (35)와 같은 식형에 의하여 각각 (36)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여기에서 (36a)의 표현을 (36b)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은 X, Y는 집합의 변항이므로 이는 개체의 집합 표현인 λx [X(x)]와 동일한 유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34b)의 꽃이 피다 역시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꽃이 피다**의 의미를 (37)과 같이 기술하는 것은 **합당한 의**미기술이 될 수 없다.

(37) a. [꽃 ⊓ 피다]
b. λx [꽃(x) ∧ 피다(x)]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꽃**의 외연은 나무의 외연과 동일한 관계가 아니라는 점이다. DeBruin and Scha에 의하면 관계명사 가운데 father, age, height, weight 등은 논항에 적용하여 그 값은 개체나 수, 양, 등급이 된다는 것이다.

(38) a. Bill is John's father.
b. (Equal Bill (father of John))

따라서 (38a)의 의미는 (38b)와 같이 기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관계명사의 의미를 함수로 간주한다면 앞에서 논의한 제 2주어의 경우도 관계명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관계명사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39) a. 이 나무가 꽃이 피다.
b. 철수가 목이 쉬었다.
(40) a. λX,Y [X ⊓ Y]
= [꽃 ⊓ 피다] (나무)
= λx [λx[x의 꽃](x) ∧ 피다(x)] (나무)
b. λX,Y [X ⊓ Y]
= [목 ⊓ 쉬다] (철수)
= λx [λx[x의 목](x) ∧ 쉬다(x)] (철수)

(40a)에서 보는 것처럼 **꽃과 피다가 결합하여** 하나의 함수표현이 되는 것은 **꽃(이) 피다**가 하나의 구성요소를 이루면서 의미적으로도 서술적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꽃의 외연과 피다**의 외연은 그 특성이 다르다. 바꾸어 말하면 **꽃**은 관계명사인데 반해서 **피다**는 순수한 서술어이기 때문

이다. 즉 **꽃**은 어떤 식물 (나무)의 부분으로써의 관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꽃**이 상위의 주어를 갖는 경우는 (40a)에서 보는 것처럼 [λx[x의 꽃]](x)과 같은 관계로 기술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40b)에 있어서도 명사 **목**은 동사 **쉬다**와 합침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의미상 **목 쉬다**와 같은 서술적 의미를 나타내면서도 **목**은 명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상위 주어와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명사로 볼 수 있다. 직관에 비추어 보더라도 **목**은 주어진 대상이 밝혀져야 **목**의 의미가 드러날 것이다. 즉 사람의 목이던 아니면 병 목이든 아니며 새의 목이던 간에 **목**이 **목**으로써의 명시적 외연을 갖기 위해서는 목의 관계에 있는 상위개념이 주어져야한다. 따라서 상위 개념이 주어질 경우 **목**은 상위 개체와의 관계명사로 간주된다. 따라서 **목**의 의미는 단순한 목(x)와 같은 명제적 표현이 아니라 λx[x의 목](x)과 같은 관계로 표시되어야 할 것이다.

중주어의 논항관계에서 볼 때, 제1주어만 명시적 논항으로써 외부논항이 되며 그 외의 주어는 내부논항으로써 서술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마찬가지로 이른바 사슬동사에 있어서도 이와 마찬가지의 논항관계가 성립할 것이다.

(41) a. 철수는 젖을 먹고 논다.
b. 철수는 먹고 논다.

(41a)에 있어서 동사 **먹다**는 논항 **젖**과 **철수**를 각각 논항으로 취하는 2항 술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반해서 (41b)에서 **먹고 논다**는 **철수**를 논항으로 취하는 1항 술어라 할 수 있다. 즉 (41)의 논항구조는 각각 (42)와 같다.

(42) a. 철수는 젖을 먹고 놀다 → 먹다(철수, 젖) ∧ 놀다(철수)
b. 철수는 먹고 놀다. → 먹고 놀다 (철수)
= λX,Y [X ⊓ Y]
= [먹다 ⊓ 놀다] (철수)
= λx [먹다(x) ∧ 놀다(x)] (철수)

(42a)에서 보는 것처럼 동사 **먹다**와 **놀다**가 결합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먹다**가 취하는 논항은 물론이고 **놀다**의 명시적 논항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나 (42b)의 **먹고 놀다**는 하나의 단순동사이므로 이들은 두 동사가 합침관계에 있다. 즉 [먹다 ⊓ 놀다]의 외연이 철수를 논항으로 취하는 함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복합 동사에 있어서는 두 동사의 논항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의적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통사적으로 동사가 갖는 논항의 개수와 논항의 특성이 다를 수 있다.

(43) 철수는 개를 기르고 판다.

(43)의 **기르고 판다**의 논항구조는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즉 **기르고 판다**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항구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44) a. 기르다 (x, y) ∧ 팔다 (x, y)
b. 기르다 (x, y) ∧ 팔다 (x, z)

예컨대 철수가 A라는 개를 길러서 A라는 개를 파는 경우라면 (44a)와 같은 논항구조를 갖는 경우이다. 그러나 철수는 A라는 개를 기르는 일과 또 철수는 A라는 개를 포함한 다른 개 B를 파는 경우라 한다면 (44b)과 같은 논항구조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즉 **기르고 판다**에 있어서는 철수가 기르는 개와 파는 개가 다를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철수가 사육한 개와 파는 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논항구조를 갖는다.

그러나 동일한 두 동사로 이루어진 경우라 할지라도 사슬동사로 쓰이는 경우의 논항은 **기르고 판다**가 갖는 논항과는 다를 수 있다. 즉 **길러 판다**에 있어서는 동일한 목적어를 취하는 경우로써, 철수는 기른 바로 그 개를 판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45) a. 철수는 개를 길러 판다.
b. 기르다(x, y) ∧ 판다 (x, y)
c. 길러 판다(x, y)

(45a)의 의미는 (45b)와 같은 의미만 갖는다. 따라서 (45b)의 논리식은 두 개의 함수자가 동일한 논항을 갖게 됨으로 두 함수자의 결합인 (45c)와 같

은 논리식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앞에서 지적한 사슬동사 **길러 판다**는 두 동사가 아니라 하나의 단순동사임을 논리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반해서 다음의 두 동사 **먹다**와 **보다**에 있어서는 이들이 /-어/구조를 가지고 있던 아니면 /-고/구조를 가지고 있던 간에 모두 단순동사로 간주된다.

(46) a. 철수가 뇌물을 먹고 보았다.
b. 철수는 뇌물을 먹어 보았다.
(47) a. *철수가 뇌물을 먹고, 철수가 뇌물을 보았다.
b. *먹다(x, y) ∧ 보다(x, p)

(46)의 두 문장에서는 두 동사가 타동사이면서도 이들 동사 가운데 어느 하나의 동사는 목적어를 갖지 못한다. 즉 (46)의 두 문장은 (47a)로 바꾸어 쓸 수 없으나 (47b)와 같은 구조로 표시될 수는 있다. 즉 철수는 뇌물을 먹었고, 그리고 철수는 앞 명제적 결과(여기서는 명제 p로 표시하였음)를 보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먹고 보다**나 **먹어 보다**가 각각 독립적으로 논항을 취할 수 없다는 사실은 바로 이들이 복합동사가 아니라 하나의 단순동사임을 말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형태상으로는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동사가 독립적인 통사적 기능을 갖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복합동사와 사슬동사를 구분하는 일차적 근거가 된다. 따라서 복합동사와 단순동사의 구별은 이들 동사 각각이 독립적 논항을 취하는 경우이며, 단순동사는 비록 두 동사가 연속적으로 쓰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들 동사 가운데 하나의 동사라도 통사적 기능을 상실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앞에서 보아온 **기르고 판다**는 복합동사인데 반해서 **먹고 보다**나 **먹어 보다**는 단순동사라 할 수 있다.

5.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두 동사가 병행하여 쓰이는 경우 선행동사를 본동사로 간주하고 후행동사를 조동사로 간주하여 V + AUX로 이루어진

VP로 파악하려고 하였던 이른바 복합동사와 사슬동사의 통사·의미적 차이를 밝히고, 논항구조에 따른 의미적 차이를 형식적으로 기술하였다. 특히 중주어 구문에 있어서 제2주어를 서술어의 내부논항으로 간주한 것이 아니라 함수표현으로 간주함으로써, 자동사가 내부논항과 외부논항을 취하는 2항 술어로 간주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예컨대 철수는 키가 크다와같은 구조를 크다(철수, 키)와 같은 논리식으로 표시함으로써 명시적 2항 술어 구조와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동사가 취하는 논항 가운데는 명시적 논항과 비명시적 논항을 제시함으로써 복합동사가 갖는 특성과 사슬동사가 갖는 특성을 규명할 수 있다 예컨대 두고 보자가 갖는 비명시적 논항 보다의 의미를 통사적으로 표시함으로써, 동사의 의미를 어휘적 입장에서 형식화 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였다.

참고문헌

김석득. 1992. 「우리말 형태론」 서울, 탑출판사.

남기심/고영근. 1991. 「표준 국어 문법론」 서울, 탑출판사.

서정수. 1996. 「국어 문법」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원.

성기철. 1972. "어미 '-고'와 '-어'의 비교연구." 「국어교육」 18, 19.

양동휘. 1978. "국어 보조동사의 관용성" <김영희 박사 송수기념 영어영문학논총>.

이영헌. 1996. "한국어 사슬동사의 몇가지 특성," 「언어」 21권 4호.

_____. 1996. "형용사의 논항구조에 관한 연구," 「언어학」 4.

최현배. 1971. 「우리 말본」 서울, 정음사.

Akira Ikeya. 1991. A contextual Approach to Japanese Adjectives" The 6th Japanese-Korean Joint Conference on Formal Linguistics.

Akira Ikeya. 1996. Though constructions of Japanese and English in HPSG Framework, in *Discourse and Meaning* eds. B. H. Partee, and P Sgall, John Benjamin Publishing Co. Philadelphia.

Bartsch R. 1986. "Foundations of Pragmatics and Lexical Semantics," in *Journal of semantics*, 5, 293-320

Cresswell, M. J. 1973. *Logics and Languages*, London, William Clowes, and Sons.

Debruin, J. and Remko J. H. Scha. 1988. The Interpretation of

Relational Nouns, *26th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Morristown, NJ.

Gamut, L.T.F. 1981. *Logic, Language, and Meaning Vol 2,*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Groenendijk, J., D. d., John, and M. Stokhof, eds. 1986. Foundations of Pragmatics and Lexical Semantics. Foris,

Ingria R. P. and L M. George. 1993. Adjective, Nominals, and the status of Arguments, in *Semantics and the Lexicon,* eds. by J. Pustejoovsky.

Jespersen Otto. 1949. *A modern English Grammar on historical principles,* V.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Lee, Kee-Dong. 1978. " The Dietic Verbs o-ta and Ka-ta in Korean, in Chin-W. Kim (ed) *Papers in Korean Linguistics,* Columbia, South Carolina, Hormbeam Press.

Li Charles and Sandra Thompson. 1973. "Serial verb constructions in Mandarin Chinese: Subordination or coordination?" *CLS Comparative Syntax Festival.*

Pullum G .K. 1990. "Constraints on Intransitive quasi-serial verb constructions in modern Colloquial English." in *When Verbs collide: papers from the 1990 Ohio State Mini-Conference on Serial verbs,* Ohio, Ohio State University.

Pustejovsky J. eds. 1993. *Semantics and the Lexicon,* Kluwer Academic, The Netherlands.

Sebba Mark. 1987. *the Syntax of Serial Verbs,*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

Seuren Pieter. 1990. "Serial verb Constructions." *When Verbs collide: papers from the 1990 Ohio State Mini-Conference on Serial verbs,* Ohio, Ohio State University.

Williams, E. 1980. "Predication," in *Linguistic Inquiry* Vol 11.

Yang, In-Seok. 1978. "Pragmatics of Going/coming Compound verbs in Korean" in Chin-W. Kim (ed) *Papers in Korean Linguistics,* Columbia, South Carolina, Hormbeam Press.

Zwicky A. 1990. "What are we talking about when we talk about serial verbs?" in *When Verbs collide: papers from the 1990 Ohio State Mini-Conference on Serial verbs,* Ohio, Ohio State University.